



도어스테핑인가? 도그스테핑인가?

지난해 말 “바이든이 쪽팔려”로 한바탕 곤욕(困辱)을 치른 윤석열씨가 “도어스테핑”을 전격 중단했다. 번번이 설화를 촉발했지만 나름 많이 즐겼을 놀이였다. 자신이 무슨 말을 쏟아내도 기자들이 토달지 않고 경전의듯

받아 적는 모습에서 느끼는 뿌듯함이랄까? 그 맛을 잇고 당장 MBC의 반란을 진압해야 하는 심정은 참으로 쓰리고 아렸을 것이다. “봤지? MBC 때문에 도어스테핑은 없는 거야? 알아서들 해.”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설친다더니 이제는 한동훈씨가 대신 도어스테핑의 짜릿한 맛을 즐기는 듯하다.

Doorstepping이 무엇인가?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도어스테핑은 주체어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왜 지도자가 국민에게 굳이 생소한 외국어로 말하는가? 대체 도어스테핑이 무엇이란 말인가?

Doorstep은 명사로 출입문에 오르는 계단이나 문에 가까운 공간을 말한다. 동사로서 언론인이 취재 대상자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서 대상자가 말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을 거는(취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자들이 대상자의 집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가 대상자가 나타나면 들이닥쳐 다짜고짜 마이크를 들이미는 것이다. 당사자로서는 집에까지 쳐들어왔으니 예상치 못한 기습에 놀랄 수밖에 없다. 외통수처럼 피할 데도 없으니 대단히 난감하고 불쾌한 일이다. 말하자면 “깜짝 문간취재”라 할 수 있다. 조국씨와 그 식구들에 대한 기레기들의 막가파식 “뺨치기”에 꼭 맞는 표현이다.

Dogstep과 "Dogstepping"

Doorstep과 비슷하게 dogstep라는 말이 있다. 강아지가 높은 곳에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계단이다. 물론 강아지가 걷고 뛰는 모습(춤)을 묘사하는 말일 수도 있다. 동사형을 만든다면 “dogstepping”은 아마도 강아지(기레기)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길들이는 행위 쪽으로 정의될 것이다. 지정한 장단에 맞춰 무조건반사로 춤추고 구르도록 훈련시킨다. 감히 주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물어뜯지 못하도록 세뇌시키는 일이다.

윤씨의 도어스테핑은 도그스테핑이다

윤씨의 도어스테핑은 doorstepping과는 전혀 다르다. 첫째, 장소가 윤씨의 집이 아니라 누구나 아는 집무실이다. 언제든 피할 수 있다. 둘째, 문앞 계단이나 문간이 아니라 미리 문답할 준비가 된 복도에서 일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셋째, 따라서 윤씨가 깜짝 놀랄 일도 없고, 기자들이 하염없이 “뺨치기”를 할 일도 없다. 서로 출퇴근시간만 쟁기면 된다.

네째, 기자들에게 질문을 미리 받는다 하고 하는데, 형식상 즉흥문답일 뿐 전혀 긴장감이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너무 박한가? 물론 마련된 답안을 윤씨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좌충우돌 돌발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다섯째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있다. 기자들이 윤씨를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씨가 어떤 말을 흘리면 기자들은 그저 주워먹을 뿐이다. 말이 맞는 지 틀리는지, 독이 묻었는지 아닌지는 관심 밖이다. 본인도 뜻도 모르고 기억도 못할 말 아닌가. 여섯째, 그러므로 윤씨가 도어스테핑의 범위와 형식과 절차 모두를 결정한다. 기자들은 선택지가 없다. 윤씨의 심사가 뒤틀리면 버럭질을 하거나 해당 기자를 꼭 찍어 내면 그만이다. 그의 “Yuji 민주주의”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상적인 doorstepping이라면 지도자는 주체가 아니라 스스로 객체가 되어야 한다. 항상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가 국민 앞에 선 마음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해야 한다. 일정한 장소를 정하거나 횡수와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거리를 미리 받거나 불편한 질문이라며 화내지는 말아야 한다. 보도내용이 좀 틀리고 맘에 안든다고 고발하지 말아야 한다. 아담(공직자)은 어떤 경우에도 신(국민)이 금지한 선악과(언론의 양심)를 따먹지 말아야 한다(1991: 89-91).

윤씨의 도어스테핑은 “도그스테핑”(똥강아지 길들이기)에 가깝다. 주체인 윤씨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 종을 치고 먹잇감을 뿌리면 객체인 기레기들이 꾸역꾸역 몰려와 정신없이 모이를 쫓는다. 일단 허겁지겁 목구멍으로 넘기고 보는 게걸스러움은 똥인지 뉘장인지 따지지 않는다. 그럴 짬도 없다. 미운털이 박힌 오리들은 주둥이를 사정없이 걷어차고 순종할 때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윤씨의 “도어스테핑”은 중단되었으나 “도그스테핑”은 멈출 줄을 모른다.

윤씨의 도어스테핑은 “본인만 말할 자유”를 누리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용두절인 셈이다. 애초부터 소통은 없었다. 게다가 내용이 없거나 틀리거나 비뚤어져 있다. 짧고 좁고 얇고 가볍다. 게으르고 무성의하다. 태도도 불량하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는 커녕 만냥 빚을 덤으로 엮고 있다. 건성건성 멧대로가 화근이다.

똥난이 열등생의 허장성세

윤씨와 그 측근들의 말은 종종 귀를 거슬리게 한다.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황당한 논리가 사람을 좌절시킨다. 동의없는 사친과 위패가 이차가해라니... 뜯금없이 영어를 섞는 말법은 차라리 고문이다. 대체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영어를 모르면 국민도 아닌가? 조미료가 범벅된 음식을 씹는 불쾌함이다. 절로 구역질이 난다.

“문간취재”가 아니라 꼭 “도어스테핑”이어야 하나? “혼잡관리”가 아닌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뭐가 있어 보이냐? “가본먼트 인게이지먼트”나 “레규레이션”이라고 “어그레시브하게” 내지르면 좀 유식하게 들리냐? Government engagement가 정부규제면 civic engagement는 시민규제가 되는가? 유권자를 육보이는 것이다. 대개 삼류 똥난이들이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하려다 사고를 친다. 엉겁결에 분수에 넘치는 자리를 꿰찬 열등생들의 허세랄까. 뭘 좀 아는 자는 요란스럽게 주접떨지 않는다. 그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버는 여물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언젠가 가게에 꼬마를 데려온 어느 강남야출마의 귀티나는 훈계가 생각한다. “디스(this)는 대인저(danger)야. 그니까 돈타치(don't touch)에용. 오-케이(Okay)?” 도어스테핑이라... 딱 그 수준이다.



어쩌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네पाल을 다녀왔다. 수도인 카트만두는 히말라야 산맥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다. 공해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는지 대기오염이 심하다. 북위 27도에 걸쳐 있고 해수면에서 1,300미터나 높은 곳에 앉아 있다. 2월 초인데 낮기온이 20도를 오르내린다.

과거 궁전이었다는 더르바르 광장을 둘러보았다. 사람과 개와 비둘기가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신과 왕의 위엄은 아기자기한 조형물에서나 찾아봐야 했다. 한때는 강성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왕실은 스스로 신망을 잃고 2008년 쫓겨났다. 면적이나 인구가 서울의 1할인 카트만두인데, 도로며 다리며 건물이며 변변한 것이 거의 없다. 잿빛 먼지를 뒤집어쓴 가로수가 하늘거린다.

가죽이고 구멍뚫린 전봇대

차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시나브로 전봇대에 시선이 간다. 길거리에 박혀 있는 많은 전봇대들. 아무리 찾아봐도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기울어져 있다. 위태롭다.

너무나 많은 전기줄이 전봇대를 휘감고 있다. 분배기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유선TV와 인터넷 선이 전기줄과 뒤섞여 있는 듯하다. 몇 개인지 세지도 못할 검은 줄들이 전봇대에 너저분하게 발을 걸치고 있다. 야생 원숭이 무리들이 전선을 타고 재주를 부린다. 어떤 놈은 해먹에 누운 것처럼 전기줄 다발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

이러니 전봇대가 배겨날 재간이 없다. 앞뒤 좌우로 기울고 있다. 가로등이라도 서 있으면 전선이 슬쩍 손을 얹고 있다. 한마디로 전기줄이 전봇대에 걸려있는 것인지 전봇대가 전기줄에 매달려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기간 시설이 열악하여 전기줄을 수용하지 못하니 전봇대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가중되는 듯하다.

콘크리트 전봇대를 자세히 살펴보니 원형 기둥이 아니었다. 단면이 직사각형이었다. 전봇대 절반은 사각형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람의 저항을 피하려 했던 모양이다. 각진 전봇대는 얼핏 봐도 튼튼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린다. 원형 전봇대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였을까? 콘크리트 표면은 쉽게 삭는지 부스러지고 있다. 쇠파이프 전봇대는 녹슬어 있고, 얇은 꼭대기는 금방이라도 휘어질 듯하다.

카트만두의 도로와 대중교통

카트만두의 차도는 좁고 굽어 있고 연결성이 부족하다. 옛날 사람이 오가고, 짐승들이 몰려 다니고, 마차가 지나던 길이 연상된다. 사람과 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있

네पाल의 전봇대와 윤석열의 전봇대

으니 잠시만 방심해도 사고나기 십상이다. 차도와 보도는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폭이 1미터가 안되는 인도가 허다하다. 진흙 위에 먼지가 뿌얇게 내려 앉아 있으니 중앙선과 횡단보도를 알아보기 어렵다. 신호등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별 소용이 없다. 경찰관이 나와서 실재없이 손짓을 하고 있다. 눈치가 없으면 길건너는 일도 쉽지 않다. 10분이면 족할 거리를 한시간을 간다. 걷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

멀쩡하게 생긴 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작고 오래된 버스들이 제각각인 색깔을 입고 다닌다. 공터에 마련된 터미널에서 버스들이 아무데서나 승객을 싣고 있다. 지정된 승차구역이 없으니 행선지를 어찌 구분하는지 궁금하다. 제대로 된 정류장을 찾기가 힘들다. 대중교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나르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은 평온하다. 불평보다는 웃음이다. 두려움이나 긴장보다는 여유로움이다. 젊은이와 아이들의 생동감이 이슬처럼 빛난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역대 왕들은 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 주는데 골몰하거나 후손들을 위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한 것같지 않다. 여민동락을 하지 않은 것이다. 화려한 궁궐을 짓고 정교한 탑을 쌓기 전에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기반시설을 확충했어야 했다.

시민들의 의식과 요구는 저 멀리에 가 있는데, 왕과 정부는 그 기대에 못미쳤다. 그 괴리를 채우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마침 지나다가 공사중인 고층 빌딩을 보았다. 첨단 유리벽으로 짓고 있는 철강건물은 굵은 통대나무를 끈으로(철사가 아닌) 묶은 안전구조물이 둘러싸고 있다. 어찌구무 없이는 이 부조화를 어찌해야 하나. 늘어나는 전기줄을 감당하지 못하고 위태롭게 서 있는, 모나고 구멍뚫린 전봇대를 묘하게 닮았다.

윤석열의 전봇대는 안녕한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반세기 동안 폐허나 다름없는 터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몸부림쳤다.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모범이 될 만한 기반구조를 만들어 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섰다.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낙후된 정치와 언론 지형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왕의 무관심과 게으름과 폐악질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도 갖추지 못한 정권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 국민의 열망을 떠받들어야 할 “정치 전봇대”가 중심을 잃고 기운다. 대책없이 친미탈중국을 외치다 균형을 잃고 탈탈 털리고 있다. 둥글고 강한 원형 기둥이 아니라 단면이 길쭉한 직사각형 말뚝을 박았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이리 저리 부딪히고 굽는다. 비바람에 시달린다. 머리카락 다발처럼 얽히고 설킨 당면과제를 모나고 삭은 작대기로 풀어낼 수 없다.

“정치 차도”는 진흙탕이고 안개 속이다. 세계는 전쟁같은 아귀다툼으로 우릴 옥죄오는데, 한가하게 편을 가르고 “애들 풀어서” 정적을 때려잡고 있다. 약속을 뒤집어도 변명은 커녕 적반하장이다. 이젠 누가 참인지 누가 옳은지 분별하기도 어렵다. 꼭 해야 할 것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도 없는 무도한 세상이다. 중앙선과 차선이 없다. 국민이 다니는 인도는 좁아지고 정치 차도에 밀려나기 일쑤다. 바퀴가 빠지고 창문이 깨진 “정치 버스”는 국민의 요구를 실어나르지 못한다. 난방비와 전기료가 폭등해도 전정권 탄만 한다. 못난 불량 버스다.

“정치 신호등”은 있는 곳이 드물고, 있어봤자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제복입은 자가 나타나 제멋대로 호루라기를 불고 손짓을 할 뿐이다. 법과 양심良心은 밥과 양심悭心으로 뒤바뀐지 오래다. 학생의 인턴 활동은 반란죄인듯 압수수색으로 뒤지고 성인의 학력과 경력 위조는 눈감는다. 600만원 개인장학금은 뇌물이고, 50억원은 그냥 퇴직금일 뿐이다. “정치 신호등”은 권력자와 관점사 앞에서 언제나 파란불을 켜다. 그들이 타고 내리는 곳이 바로 정류장이다. 도로에서 있는 표지판은 그들의 달리는 대로 속도와 방향을 자동으로 바꾼다. 과속이든 역주행이든 주차위반이든 그들에겐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모질고 천박한 전봇대 정권의 상식이고 공정이고 정의다.

이런 상황에서 진리는 각자도생이다. 승용차든 트럭이든 오토바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치껏 먼저 내뺀 것이 최고다. 강호에 도가 사라지니 못하는 것이 없다. 어찌면 우리는 코로나에 너무 지친 나머지 깜빡 정신줄을 놓았던 것이다. 참지 못하고 너무 과격하게 내내다 망한 것이다. 묵묵히 잘 버티주던 원형 전봇대를 흔들어 뽑아내고 근본없이 모나고 구멍이 숭숭 뚫린 말뚝을 박아넣었으니, 이 사달이다. 